

## 영성이 희생되지 않는 디지털 교육

남종성 교수

(앞 부분)

COVID-19 이후에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런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가에 있다. 디지털 안에 어떻게 하면 영성과 감성을 담을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가 되었다. 현재의 온라인 시스템 뿐만 아니라 앞으로 AI 까지 동원된 온라인 교육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효율성만이 교육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 준다고 말할 수 없다. 특별히 신학교육에서는 더 그렇다. 디지털이라는 도구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도구가 목적보다 앞설 수 없다. 어떤 도구이든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더 보기)

앞으로 디지털 세계는 어떻게 될까?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 즉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을 활용하는 환경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반면에 부모들은 ‘디지털 이주민’ 이라고 말할 한다) 의 삶을 보면 어느정도 예측이 될 수 있다. 하버드 법대의 존 팰프리(John Palfrey) 교수와 스위스의 세인트 갤런 법대 교수인 우르스 가서(Urs Gasser)가 펴낸 「그들이 위험하다: 왜 하버드는 디지털 세대를 걱정하는가」에서 디지털 원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 1) 강의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2) 존중받고 신뢰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견이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란다.
- 3)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좇고 싶어한다.
- 4) 동료와 함께 그룹 작업과 프로젝트 수행을 하고 싶어 하며, 무임승차하는 게으른 학생을 피하고 싶어한다.
- 5) 교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고 싶어한다.
- 6) 협업하고 경쟁하고 싶어한다.
- 7) 단순히 적절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디지털 원주민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혼자 기계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연결하고 협력하고자 한다. 기계적으로 정보만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매우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정보를 재 가공하고 새로운 지식과 예술 형태를 창조한다. 그러면서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더 나아가 이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존중받고 신뢰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견이 소중히 여겨지기를 바란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맺고 협업하며 경쟁하고 싶어한다. 단순히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런 시대의 변화와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있다.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강의실을 준비 중에 있다. 스마트 강의실은 디지털 시대에 합당한 교육을 추구해 나가는 훌륭한 공간이 될 것이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디지털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 기술안에 영성을 더욱 풍성히 담아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